

****알도 반 아이크 건축에서 “사이 영역” 개념에 관한 연구

- 1945년부터 1959년 사이의 戰後 CIAM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 of “In-Between” in Aldo van Eyck’s Architecture

- Focus on the postwar CIAM, 1945-1959 -

오광석* / Oh, Kwang-Suek
안웅희** / Ahn, Woong-Hee
전영훈*** / Jeon, Young-H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the concept of relation in the postwar CIAM’s debate was the hot issue which led to the collapse of CIAM, and that Aldo van Eyck developed it into the concept of “in-between”. The postwar CIAM’s young members voiced a critique of the universalizing attitude toward dwelling that CIAM had pursued since 1928 and looked for a new approach that would take into account the relation around dwelling. So,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s of relation which were proposed by the postwar CIAM’s young members.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Aldo van Eyck extended the concept of “in-between” not to have the polarities, such as inside/outside, close/open, part/whole, neutralize or cancel one another out, but to attune them in such a way that they reinforce each other by mutual contrast, while the other young CIAM’s members limited it to transition or connection. And, this paper analyzes the Municipal Orphanage in Amsterdam which was presented in CIAM 10. Through the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the building presents many polarities simultaneously such as those; indoor and out door realms, dynamics and immutability, part and whole, and so on. In conclusion,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at the concept of “in-between” is the fundamental binary-compound relation that lies at the root of Aldo van Eyck’s architectural thought and bears on an interaction on a reciprocal relation between the inhabitant and the built environment.

키워드 : 알도 반 아이크, 사이 영역, 관계, 암스테르담 시립 고아원

Keywords : Aldo van Eyck, In-Between, Relation, Municipal Orphanage in Amsterdam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0세기 전반부의 근대건축에서 그 근간이 되었던 근대건축 국제회의(본 논문에서는 이후 CIAM으로 표기)¹⁾의 해체와 팀 텐(Team X)의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네덜란드 건축가

알도 반 아이크는 근대건축에서 팽배해 있었던 획일적인 기능주의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관계의 구조를 탐구하고자 하였다.²⁾

본 논문에서는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영역(in-between) 개념이 CIAM의 해체와 팀 텐의 등장이라는 일련의 사건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사이 영역의 개념이 戰後 CIAM의 새로운 분위기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개념

* 정회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조교수

** 정회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3-D00406)

1)근대건축국제회의(CIAM)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이전에 5차례와 이후 5차례의 회의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이전을 戰前 CIAM, 이후를 戰後 CIAM으로 칭한다.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3rd ed., Thames and Hudson, London, 1992, p.269

2)Frampton, 앞의 책, p.276

이 팀 텐 내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영역 개념이 그의 건축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戰後의 과도기적 시기에 근대건축에 대한 비판적 태도³⁾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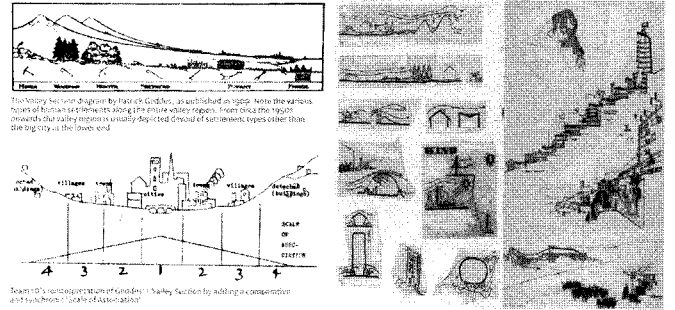
戰後 CIAM에 등장한 젊은 세대들은 근대건축을 주도했던 기성세대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전환기의 새로운 건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 동안 戰前 CIAM이 주목하였던 도시의 기능에 관한 문제에서 기능들 간의 관계의 문제로 관심이 옮겨졌던 것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된 戰後 CIAM으로 한정하여 당시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관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CIAM 내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이 처음으로 비롯된 주거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실제적인 계획안으로 제시한 스미슨 부부의 가로 개념을 통해, 전후 CIAM 내에서 논의된 관계구조의 사고들과 그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영역 개념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 개념들과 이를 심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고, 戰後의 사회문화적 바탕위에 형성된 철학적 배경과 함께 현대 건축과의 관계도 아울러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알도 반 아이크가 戰後 CIAM에서 제출한 암스테르담 시립 고아원 작품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이 영역 개념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戰後 CIAM에서 관계 개념의 전개

2.1. 주거에 대한 개념의 변화

戰後 CIAM에서는 '커뮤니티 계획'⁴⁾ 개념과 생태학⁵⁾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영향으로 인해 주거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후 CIAM의 젊은 구성원들은 주거의 단일 기능보다는 주거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회학자이면서 도시계획전문가인 게데스(Petrick Geddes)는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대한 점유의 상황에

따라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인간 교류의 정도를 다이어그램 <그림 1>으로 나타내었는데, 이 개념은 특정한 장소마다 그에 해당하는 사회적 조건을 부여하는 도시계획 방법론에 적용되었다.⁶⁾ 그리고 팀 텐의 구성원 중에서 특히, 환경생태학에 관심이 많았던 영국 출신의 건축가 어스킨(Ralph Erskine)은 북부 유럽(스웨덴)의 기후 환경에 적합한 주거계획<그림 2>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⁷⁾



<그림 1> P. Geddes, valley section, 1956 <그림 2> Ralph Erskine, Arctic Town, 1958

이처럼 戰後 CIAM의 젊은 세대들은 주거의 기능과 주거를 둘러싼 총체적 환경에 주목함으로써, 근대 건축의 전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즉, 戰前의 기능적 도시 개념에서는 각각의 기능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계획 방법론이 도시의 기존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시의 주변 맥락과 환경에 따라 차별화시키고, 기능과 기능 사이의 관계와 커뮤니티에 주목함으로써, 차후 팀 텐을 주축으로 관계의 구조를 탐구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2. 스미슨 부부의 가로 개념

戰後 CIAM의 영국 대표인 스미슨 부부(Peter & Alison Smithson)는 주거의 영역에서 나와서 공공의 관계를 가지는 첫 번째 단계로서 특히, 광장이 아닌 가로에 주목하게 되는데, 도시의 가로를 단순히 이곳과 저곳을 이어주는 기능적 공간이 아니라, 거주자들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바라보고자 하였고,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근대도시계획에서 흔히 분리하고자 했던 교통과 주거를 의식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⁸⁾ 그러나 주거와 교통의 연결에 대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그들의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되

3)Goldhagen, Sarah & Legault, Rejean ed. Anxious Modernisms: Experimentation in Postwar Architectural Culture, The MIT press, Massachusetts, 2000, p.11

4)Mumford, Eric.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The MIT press, Massachusetts, 2000, p.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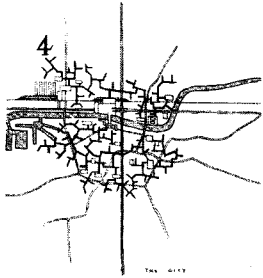
5)위의 책, p.214

6)Van Den Heuvel, Dirk & Risselada, Max ed., Team10: In Search of a Utopia of the Present 1953-81, NAI Publishers, Rotterdam, 2006, p.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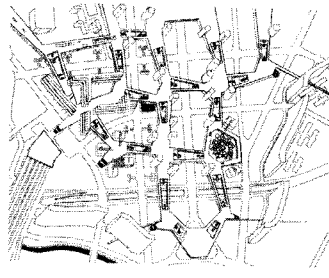
7)위의 책, p.72

8)Smithson, Alison ed., Team 10 Primer, The MIT Press, Massachusetts, 1974, p.78

었고, 이러한 경향은 그들이 도시의 커뮤니티를 증진시키고자 50년대부터 6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공중가로'의 계획안들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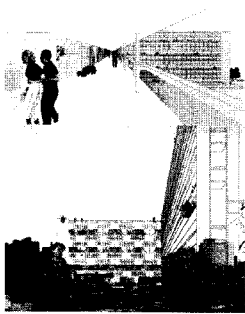


<그림 3> P.A. Smithson, Golden Lane Project, 19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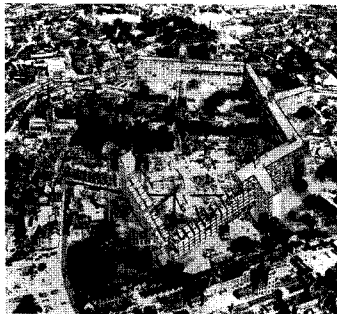


<그림 4> P.A. Smithson, Hauptstadt Berlin Project, 1958

<그림 3, 4>에서 보듯이 모든 도로에 걸쳐 형성된 교통망은 전통적인 근린주구의 경계에 의해 잘려나가지도 않았으며, 또한 전 도시 지역으로까지 뻗어있다. 특히, 그들이 1952년에 CIAM 9차 회의에서 발표한 골든 레인 계획안<그림 5, 6>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주거단지를 기존의 도시 조직 속에 침투시켜 주변 맥락과의 접촉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지만, 계획된 건물의 단부들을 살펴보면 폐허가 된 기존의 도시 구조나 주변의 건물들과 실제적인 연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연결복도는 서로 마주보는 측의 기능과 행위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떠한 교류의 가능성도 배제된 채 단지 기능적인 교통로에 불과하다.



<그림 5> P.A. Smithson, Golden Lane Project, 19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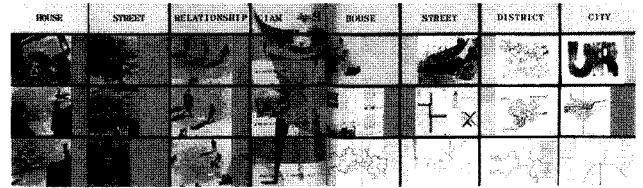
<그림 6> P.A. Smithson, Golden Lane Project, 1952-53

결국, 스미슨 부부는 가로를 통한 연계를 '소통하기 쉬움'이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교통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이 공간의 표현보다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연결의 외형적 형태에서 그 표현을 찾고자 했다. 특히, 골든 레인 계획안 이후 스미슨 부부의 이동성에 대한 집착은 보다 표현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하

9) 스미슨 부부는 커뮤니티의 사회적 결속이 용이한 이동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며, 고층건물들이 즐비한 거대 도시에서 용이한 이동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거지에 '공중 가로(streets-in-the-air)'가 설치된 다층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위의 책, p.76

옵쉬타트 베를린 계획안<그림 4>에서는 지층으로부터 들어 올려진 콘크리트 보도를 통한 교통의 연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서 유추되는 가로나 광장을 디자인할 목적이기보다는, 이들 가로나 광장으로부터 추상화된 삶의 양식과 이것을 드러내는 조형적 리얼리티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스미슨 부부의 가로에 관한 사고는 분명히 관계의 개념을 탐구하였던 동시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 특히, 스미슨 부부가 두브로브니크(CIAM 9차 회의)에서 발표한 영국 베스날 그린(Bethnal Green)의 가로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그림 7>은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⁰⁾



<그림 7> A. & P. Smithson, Urban Re-Identification, 1953

3.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영역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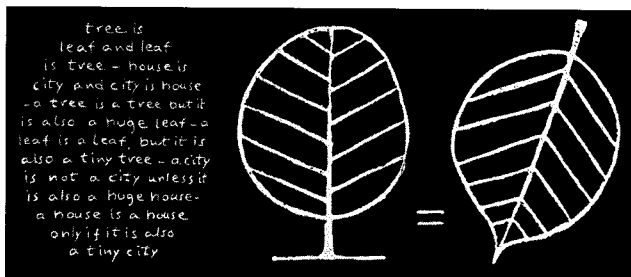
3.1. 부분과 전체의 동시적 경험의 장으로서 사이 영역

스위스 바젤 출신의 젊은 건축가들인 구트만(Rolf Gutmann)과 만쯔(Theo Manz)가 호데스틴 회의(CIAM 8)에서 제시한 핵(core) 개념¹¹⁾은 알도 반 아이크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사이 영역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구트만과 만쯔는 戰前 CIAM의 도시계획에서 행했던 것처럼 핵을 기능적 분석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며, 핵을 형성하는 맥락으로부터 떼어 내어 독립적인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핵을 만들고 있는 그 주변의 맥락과 관계를 이해해야만 진정한 핵의 본질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거도 더 이상 분리된 기능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착의 총합된 부분으로서 접근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인간의 거주지도 내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 간의 상호관계와 그 부분들이 전체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들은 마틴 부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관계의 디자인이 '사이 영역(in-between)'¹²⁾의 디자인에까지 이르러야

10) Lichtenstein, Claude & Schregenerberger, Thomas ed. As Found: The Discovery of the Ordinary, Lars Müller Publisher, Baden, 2000, pp.84-111

11) 도시의 중심으로서 핵 개념은 CIAM 8차 회의의 주제로 선정된다. Bosman, Jos, CIAM After the War: a Balance of the Modern Movement, Rassegna, Vol.14, No.52, 1992, p.14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알도 반 아이크로 하여금 부분과 전체라는 관계의 구조를 결정적이고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변화될 수 있는 상대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알도 반 아이크는 서부 아프리카의 도곤(Dogon) 마을을 여행하면서 이러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한층 진전시키게 되는데, 부분의 함으로써의 전체라는 관계 도식에서 벗어나, 부분과 전체의 공존적 관계를 탐구하게 된다. 전체로서의 마을과 부분으로서의 집을 동일화하는 것을 도곤 마을을 같이 여행했던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모르겐탈러(Fritz Morgenthaler)의 경험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마을 거주자 중의 한 사람인 돔모는 ‘나는 당신에게 나의 집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모르겐탈러에게 마을을 빙 둘러 안내했다. 그러나 오히려 돔모는 모르겐탈러에게 마을의 특징들을 순회시켰던 것이다. 미팅 홀, 마을 우두머리의 집, 그리고 신성한 집 등을 한 시간쯤 걸어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돔모 자신의 집에 도달했다. 결국 그 여정의 시작점이 끝나는 점이 되어버렸다”¹³⁾라는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으로서의 집과 전체로서의 마을을 동일시함으로써 도곤 사람들은 외부라는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의 내부 세계로 만들고 있다. 즉, 그들은 전체라는 외부를 그들의 측정 가능한 테두리 내에 가져왔으며, 그들은 외부를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알도 반 아이크, Identification leaf with tree, Royaumont, 1962

알도 반 아이크는 이러한 부분과 전체의 공존적 사고를 이후 팀 텐의 르와요몽 회의(Royaumont, 1962)에서 “집은 작은 도시이며 도시는 큰 집”¹⁴⁾이라는 경구와 나무와 나뭇잎 이미지

<그림 8>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나무와 나뭇잎” 그리고 “도시와 집”이라는 두 대립항의 시적 연상을 통해, 부분과 전체, 작은 것과 큰 것, 개인과 집단 등과 같은 대립항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적 가치가 동시에 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알도 반 아이크는 이러한 시적 연상 작용이 일어나는 장, 즉 부분과 전체라는 양면적 가치가 공존하면서 그 관계가 상대적 관점에서 조절되는 장으로서 사이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3.2. 내·외부의 동시적 경험의 장으로서 사이 영역

스미슨 부부가 엑-상-프로방스 회의(Aix-en-Provence, CIAM 9, 1953)에서 제안한 문턱(doorstep)¹⁵⁾ 개념은 알도 반 아이크가 내, 외부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 개념은 이후 두브로브니크 회의(Dubrovnik, CIAM 10, 1956)에서도 알도 반 아이크의 깊은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의 일생 동안 전개된 건축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알도 반 아이크는 “스미슨 부부가 엑상 프로방스 회의에서 ‘문턱(doorstep)’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후로, 내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떠올랐다. 나는 그 이후로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어 항상 곰곰이 생각해 왔으며, 그 의미를 가능한 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다. 결국에는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건축 그 자체이고, 그 건축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사이 영역(in-between)을 두는 것은 상반된 양극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극성들이 서로 전이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쌍자현상(twin-phenomenon)¹⁶⁾을 재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은 한정된 경계 영역을 확장시켜 명확한 중간 영역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건축을 통하여 이러한 중간 영역을 제공하는 것, 즉 작은 주택으로부터 거대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어떠한 행위를 위한 진정한 장소를 제

15)戰前 CIAM의 기능 개념에서 탈피하여, 관계의 개념을 탐구하던 스미슨 부부는 CIAM 9차 회의에서 문턱의 개념을 소개한다. 그들은 근대 건축이 습관적으로 깊이 생각지 않고 잊어버린 전통적인 19세기의 평범하고 진부한 옛 도시의 가로에서 사회적이고 공간적인 결합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결합을 불러일으키는 ‘집, 뒤뜰, 문턱, 코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Smithson, Alison & Peter, *Ordinariness and Light*, The MIT Press, Massachusetts, 1970, p.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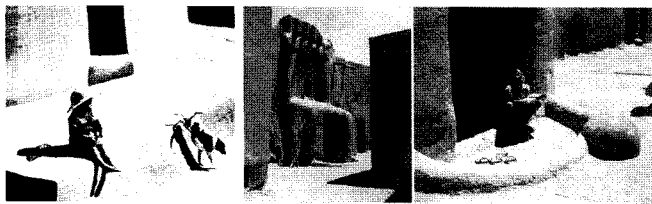
16)쌍자현상은 일면 서로 대립적이고 모순되 보이는 특성들을 통합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함께 수용하는 것으로, 알도 반 아이크는 이를 ‘twinphenomenon’이라고 부른다. 그는 적절한 전이를 이끌어내는 대립 개념의 쌍, 가령 내부와 외부, 닫힘과 열림, 부분과 전체, 작은 것과 커다란 것, 다수와 소수, 단순성과 복합성, 변화와 영속성, 질서와 혼돈, 개체성과 총체성 등을 양자택일의 선택이 아니라 양자모두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쌍자현상을 통해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쌍자현상을 두 개의 상반된 극성으로 분리하게 되면 어느 한 측면은 필연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Hertzberger, Herman & Van Roijen Wortmann, Addie & Strauven, Francis, Aldo van Eyck: *Hubertus house*, Stichting Wonen, Amsterdam, 1982, p.43

12)마틴 부버의 사유는 인간관계의 근원적인 조건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예술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객관성과 이를 받아들이는 정신적인 주관성의 사이에서 예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구조를 성찰한 부버의 사유는 알도 반 아이크가 어린 시절부터 일생에 걸쳐 사이 영역 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 Strauven, Francis, Aldo van Eyck: *The Shape of Relativity, Architectura & Natura*, Amsterdam, 1998, p.243, p.352, p.355, p.416

13)Van Eyck, Aldo, *Miracles of moderation*, Eidgeno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ürich, 1976, p.30

14)Smithson, Alison ed., *Team 10 meetings: 1953-1984*, Publikatieburo Bouwkunde, Delft, 1991, p.76

공하는 것이 건축의 사명이다”¹⁷⁾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알도 반 아이크가 사이 영역에 대한 그의 사고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언급으로, 스미슨 부부의 문턱 개념을 사이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지 집과 거리 사이의 전이 공간 혹은 우유병이나 두는 주택 문간의 층계와 같은 실체로서의 공간에 한정하기보다는, 그것의 의미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간의 의미 있는 모든 관계로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즉, 그는 문턱 개념을 내부와 외부,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개인과 집단, 물질과 감정, 부분과 전체, 영원함과 변화 등과 같은 양극성을 극복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장소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립되는 양자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양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고, 양면적 가치가 병존하는 사이 영역 개념으로 전개시켜 나간다.



<그림 9> in-between realm <그림 10> entrance of a house in Djenné

알도 반 아이크는 <그림 9>에 덧붙인 그림설명에서 “건축은 좁은 경계선들을 확장하여 그것들을 사이 영역 안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¹⁸⁾고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어린이는 독립됨을 느끼기 위해, 또 익숙지 않은 세계에 대한 모험을 위해 어머니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다. 그런 동시에 집의 일부분인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즉, 어린이는 외부세계라는 거리의 한 부분과 집이라는 내부세계에 동시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이중성은 입구의 공간적 특성 때문이며, 분리된 단이 있는 그 장소에서 내, 외부를 엄격히 가르는 경계의 성격보다는 대립되는 두 영역이 중첩되어 공존하고 있는 공간적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그는 “개방과 폐쇄를 동시에 지닌 문은 맞이와 배웅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로서의 형태이어야 하며, 잠시 멈추거나 잠시 머뭇거릴 수 있도록 초대하는 장소이어야 한다”¹⁹⁾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잘 보여주는 덴네 주택의 입구<그림 10>²⁰⁾는, 주택이 공공 가로의 일부에 걸쳐 있으면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장소로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낮은

턱을 두고 경계 지워진 형태, 내부와 외부가 융합되는 문지방, 태양빛과 그들의 경계, 태양 아래에 말리기 위해 진흙 턱 위에 걸쳐 있는 커다란 그릇 등은 주택이라는 개인의 영역을 가로라 는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위의 두 그림은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영역 개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로서, 사이 영역이 단지 내, 외부 사이의 전이공간이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놓인 매개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건축 전반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즉,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라는 대립되는 두 공간의 접점에 주목하여, 이 접점을 단지 경계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써 확장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로 건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작게는 실내 공간(interior)을 다루는 문제이며, 크게는 건축과 도시의 문제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²¹⁾

3.3. 주체적 경험의 가능성을 내재한 사이 영역

기능들의 관계에 주목한 戰後 CIAM의 젊은 세대들 중에서 알도 반 아이크는 특히, 관계의 구조뿐만 아니라 관계를 이루는 양자들 사이의 ‘관계영역’이 그 양자들의 본질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고정된 관계의 개념이나 관계를 이루는 구조 그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유동적이고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관계의 영역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립적 공간, 즉 중략 속에 담긴 모호한 감각을 창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그 사이에 남겨진 공간에 대해서도 대등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지, 알도 반 아이크는 주와 부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자각은 더 이상 위계적인 연결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반 위에서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간의 관계를 가지는 것”²²⁾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령 정물화를 볼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제가 되는 사물을 그 배경이 되는 나머지 부분에서 때어냄으로써 중요하게 묘사된 사물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세잔의 정물<그림 11>처럼, 얼핏 주제처럼 보이는 사과들 이외에 주변 것들도 주제와 똑같은 비중을 두고 처리함으로써 작가가 주로 묘사하고 했던

21)알도 반 아이크는 건축의 내부공간에서 “문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경계를 통과할 때의 전이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을 통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 두 공간의 공존적 경험이 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과 도시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과 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 속에서 도시의 속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보다 큰 스케일의 도시도 작은 주택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진정으로 좋은 도시가 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Smithson, 앞의 책, 1974, p.95, Van Eyck, Aldo, CIAM '59 in Otterlo: group for the research of social and visual interrelationships, Karl Krämer Verlag, Stuttgart, 1961, p.28

22)Strauven, 앞의 책, p.411

17)Smithson, 앞의 책, 1974, p.96

18)Van Eyck, Aldo, Niet om het even, wel evenwaardig, Van Gennep, Amsterdam, 1986, p.2

19)Strauven, 앞의 책, p.358

20)<그림 10>은 알도 반 아이크가 1960년에 수단(Sudan)으로의 여행에서 덴네 시를 방문하고 직접 촬영한 사진이다.

것이 사과인지 아니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진 사과들 사이의 공간과 그 주변의 배경인지가 모호해진다. 에른스트(Max Ernst)의 작품<그림 12>에서도 사이 공간은 분명히 그 자체가 나름대로의 형태를 획득하고 있으며, 관찰자가 주목하기에 따라 사물이 되기도 하고, 그 사물들 사이에 남겨진 공간이 되기도 한다. 즉,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 사이 공간의 형태가 결정되며, 더 나아가서는 주와 부가 상호 교차한다. 이러한 현상은 덴마크의 심리학자 루빈(E. J. Rubin)의 잔<그림 13>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검정색의 얼굴 윤곽에만 주목하면, 그 사이에 있는 흰색 꽃병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가운데 있는 흰색 꽃병에 주목함으로써 비로소 그림 전체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 영역은 그것을 형성하는 개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림 11> Paul Cézanne, Pommes et biscuits, 1879-1882 <그림 12> Max Ernst, Personnages, 1928 <그림 13> Rubin's vase, 1915

회화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희가 가능하지만 알도 반 아이크는 사이 영역을 통해, 인간의 심층적 의식 속에 내재하는 심리적, 사회적 경험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접촉과 인간의 능동적 참여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건축을 만들고자 하였다. “인간은 건축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체”²³⁾라는 알도 반 아이크의 언급은 건축을 건축가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주체인 사용자(또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즉, 건물을 경험하고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사물을 고정된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내적심리 상태를 반영한 유동적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건축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내적심리 상태에 대한 알도 반 아이크의 사고는 戰後 CIAM의 젊은 세대들이 부각시켰던 관계의 담론을 한층 심화시켰으며, 이 때문에 당시 젊은 세대들과의 교류에서 의견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알도 반 아이크의 생각에 동조를 했던 젊은 세대들 중 주프 하디(Joop Hardy)는 ‘접촉(contact)’, ‘대화(dialogue)’, ‘만남(meeting)’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턱(doorstep)이라는 관계 개념을 설명하였던 반면에, 알도 반 아이크는 ‘정신(mind)’과 같이 그 자체가

양면적인 인간의 내적 심리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사이 영역을 함축하는 어휘를 사용했다.²⁴⁾ ‘정신(mind)’은 지성과 감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어휘로서, 영적인 정신과 감성적인 바깥 사이를 오가면서 그 두 영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즉, 알도 반 아이크는 정신적인 주체성과 감성적인 주체성 모두를 포괄하는 인간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인간의 양면적인 내면세계를 사이 영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수용하고자 하였다.

3.4.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영역 개념과 현대적 확장

(1) 사이 영역 개념의 정의와 근원적 배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영역 개념은 부분과 전체, 내부와 외부, 단편과 열림, 중심과 탈중심 등과 같은 대립항들의 동시적 공존을 통해, 주체적 경험과 해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념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장소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이 영역은 상반되는 가치를 지닌 대립항 각각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각각의 본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침투되어 상반되는 양면적 가치들 사이에 풍부한 교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다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알도 반 아이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사이 영역 개념을 동시대의 젊은 건축가들의 사고와 영향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 관계는 중요한 두 가지 근원적 배경에 기인한다. 그 중 하나는 2차 대전 이후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실존주의적 가치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실존주의 철학과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은 스미슨 부부는 일련의 전시회²⁵⁾를 통해 실제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급속한 증가와 이들이 바탕으로 생겨나게 될 대중소비문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²⁶⁾ 특히, 그들이 제안한 공중 가로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소통과 삶의 모습을 구현하는 장치로서, 거리의 삶에 대한 자각이 알도 반 아이크로 하여금 내, 외부의 관계를 탐구하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²⁷⁾

24)Strauven, 앞의 책, p.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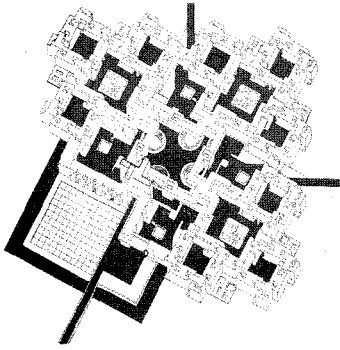
25)스미슨 부부는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예술가들과 함께, ‘Parallel of Life and Art’ 전시회와 ‘This Is Tomorrow’ 전시회 등을 가졌으며,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다다이즘적 사진이나, 인간형상의 반미학적이고 폭력적으로 왜곡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전쟁과 부패, 질병으로 황폐화 된 곳에서 삶의 흔적을 찾으려 하였다. Smithson, Alison & Smithson, Peter, The Charged Void, The Monacelli Press, New York, 2001, pp.118-122, pp.178-187

26)Goldhagen, Sarah & Legault, Rejean ed., 앞의 책, p.20

27)알도 반 아이크 건축의 연구자인 프란시스 스트라우벤은 알도 반 아이크가 간혹, ‘대화(dialogue)’나 ‘만남(meeting)’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이나 사르트르(Sartre)로부터 인용된 것이 아니라 마틴 부버의 철학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며, 알도 반

23)Van Eyck, Aldo, Place and Occasion, Progressive Architecture, vol.43, no.9, 1962. p.155

또 다른 근원은 구조주의 철학에 기인하는데,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가들이²⁸⁾ 비 서구 지역의 원시에 가까운 사회의 건축과 사회구조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근대건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사용한 방법들은, 구조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방법론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²⁹⁾ 특히, 알도 반 아이크는 도곤 마을과 덴네



<그림 14> Piet Blom, Pestalozzi Village, 1962

시로의 여행이나 푸에블로 인디언의 문화적 패턴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와 요구라는 본질에 대한 물음을 통해 건축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탐구하게 된다.³⁰⁾ 알도 반 아이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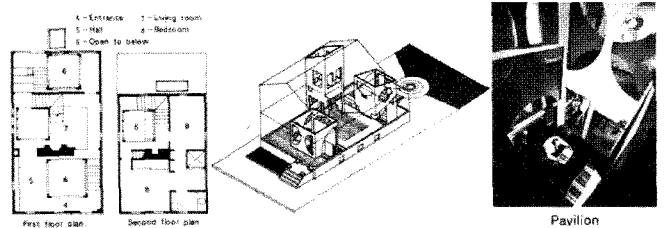
<그림 15> 틀라틸코 여인상(BC 30경, A. van Eyck 소장품)

받아들이는 구조주의 철학과 구조주의 건축은 단위 개체들의 반복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군집의 구성<그림 14>을 취하는 형태적 측면이나 사용이라는 공간 해석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³¹⁾ 그러나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주체를 탈중심화시키고 주체와 객체를 대등하게 돕으로써, 주체를 제거하려한 구조주의 건축가들과 달리 알도 반 아이크는 주체와 객체를 한 몸³²⁾ <그림 15>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³³⁾ 이 대목에서 ‘상반되는

양면적 가치의 동시적 공존’이라는 사이 영역의 개념에서 ‘공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사이 영역 개념의 현대적 확장

이와 같은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영역 개념이 공존하는 대립항들을 화해시키고 조절하는 주체적 경험과 해석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모더니즘의 보편주의적이고 일반화시키는 이성의 원리에서 탈피하여, 지각 주체의 공간에 대한 감각적 경험과 건축 작품의 독자로서의 사용자(user)의 역할³⁴⁾을 증시함으로써 건축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재해석하려는 현대 건축의 주요한 경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Charles W. Moore, New Haven House, 1966

건축공간과 형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인간(사용자 혹은 점유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신체를 중심에 두고 체험되는 공간적 질서를 만들고자 시도하였던 찰스 무어는 뉴 헤이븐의 주택 <그림 16>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파빌리언을 통해 중심성이 강한 장소를 형성하고, 그 주위로 이들을 연결하는 수평과 수직의 통로를 만들었다. 즉, 수평 통로들은 3개의 삼입된 파빌리언들을 연결하며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직 통로는 직접적인 신체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시각적인 조망을 통해서 지각되는 통로라고 볼 수 있다.³⁵⁾ 이처럼 찰스 무어의 주택에서는 큰 세계 속의 ‘작은 중심’ 혹은 ‘집 속의 집’과 같은 형태적 구성과 ‘중심과 이동’이라는 공존하는 대립적인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아이크는 실존주의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Strauven, 앞의 책, p.449

28) 네덜란드 국내에선 알도 반 아이크의 사고와 작품이 ‘New Amsterdam School’이라 불리는 새로운 건축 움직임을 일어나게 했을 정도로 그 영향이 지대하였다. 그러나 그 운동은 국외에선 ‘Dutch Structuralism’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어휘는 암스테르담의 건축학회의 ‘Structuren’ 전시회와 관련하여 60년대 중반 Piet Blom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건축잡지 『TABK』의 편집자인 A. Beerends에 의해 다시 쓰이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Van Dijk, Hans, The demise of structuralism, Architectuur in Nederland Jaarboek 1988-1989, 1989, p.6

29) 김문덕, 램 콜라스와 네덜란드 근, 현대건축, 태림문화사, 서울, 2005, p.40

30) Lüchinger, Arnulf, Structuralism i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Karl Krämer, Stuttgart, 1981, p.17

31) 김문덕, 앞의 책,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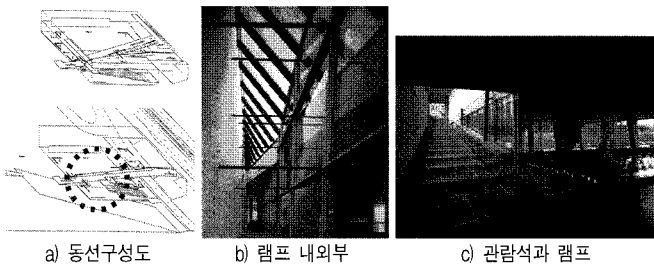
32) 3.3절에서 언급했듯이, 주프 하다가 ‘연결’이나 ‘관계’의 어휘를 사용하였던 반면에 알도 반 아이크는 ‘mind(정신/감성)’처럼 그 자체가 이중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어휘들을 선호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33) 스트라우벤은 알도 반 아이크와 레비-스트로스의 사이에는 인류학적 측면이나 대립하는 양자구도와 상호관계성에 기반을 둔 관계적 구조 등에서 유사점들이 발견된다고 말하지만, 그를 구조주의 건축가와는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다. 당시 대표적인 구조주의 건축가이면서 반 아이크의 제자인 블롬(Peter Blom)의 작품은 템 렌의 르와요몽 회의에서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반 아이크와 블롬은 결별하게 된다. 1963년 ‘Pacific Congress’ 회의의 연설에서 반 아이크는 그동안 구조주의 건축의 형태적 특징을 보여 왔던 그의 ‘형상배열적 디자인(configurative

design)’이나 ‘수의 미학(aesthetics of number)’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시하게 되고, 이후 이 개념을 포기하면서 대신에 건축적 공간의 내재적 성질인 ‘장소(place)’ 개념에 몰두하게 된다고 말한다. Strauven, 앞의 책, p.404, p.467. 또한 네덜란드 건축이론가인 한스 반 디크도 알도 반 아이크가 1962년경부터 단위공간의 반복에 의한 도식적 전략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점유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수용함으로써 ‘편안함(at home)’을 느끼게 하는데 전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Van Dijk, Hans, 위의 책,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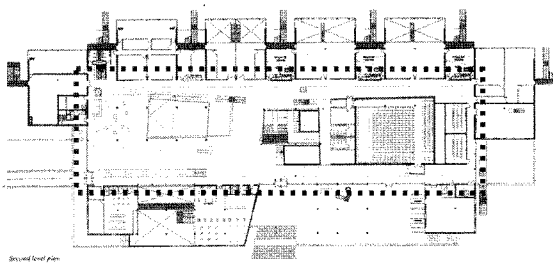
34) Hill, Jonathan, Actions of Architecture: Architects and Creative Users, Routledge, London & New York, 2003, p.3

35) 찰스 무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통로는 사람들의 왕래를 위한 기능적인 복도로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두드러지게 한 것으로서, 주택 속에서 보다 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여러 영역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Bletter, Rosemarie Haag, Rite of Passage and Place, a+u: The Work of Charles W. Moore, 김정신 역, 감을출판사, 서울, 1989, p.66



<그림 17> Rem Koolhaas, Kunsthal, 1987-92

렘 쿨하스는 ‘연속적인 동선’³⁶⁾을 주요한 개념으로 삼고 있는 쿤스탈(Kunsthal)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동선들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적 경험과 고정되지 않은 쓰임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이 건물 전체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램프가 교차하는 부분에 주출입구(<그림 17 a>의 원형 점선 부분)를 둬으로써 방문객은 극장의 관람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건물의 다른 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램프를 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³⁷⁾은 바닥면과 함께 일체화되어 양측 공간(램프에 의해 2개로 나뉘지는 공간볼륨)의 입방체 속에 관입되어 있는데, <그림 17 b>에서 보듯이 일부는 외부로 나와 있고 일부는 내부 속으로 들어가 있음으로서 내,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관람석은 그 건물의 다른 공간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게 함으로써, 동선과 개별 방들의 기능을 서로 통합시키고 있다.<그림 17 c> 이것은 건물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각 방들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소거하고, 양자가 공존하는 사이 영역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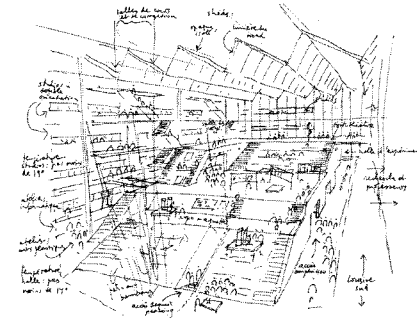


<그림 18> Bernard Tschumi, School of Architecture, 평면, 1994-99

베르나르드 츠미는 프랑스 마르노-라-벨라(Marne-La-Vallée)에 있는 건축 학교에서 틸의 공간과 잉여 공간이 각종 이벤트³⁸⁾가 발생하는 장소로 만들어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36) Rem Koolhaas, El croquis 53+79, 1998, p.198
 37) 건물 구조의 직교체계를 따르지 않고 기울어진 바닥면에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수직기둥이 아니라 기울어진 기둥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면상으로도 램프 공간을 사선 방향으로 계획함으로써, 나머지 공간과 차별화시키고 있다.
 38) 츠미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구분하고 있는데,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의 항목들을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혼합함으로써 비밀상적

삼았다. 이를 위해 그는 규모가 큰 직사각형의 실내 공간(100m×30m)을 만들고, 이것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모든 행위들을 조직화하고자 하였다.<그림 18> 중앙에 위치한 이 공간에서는 우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비평과 심사회에 사용될 수 있는 전시 홀, 매달려 있는 강당 하부의 특별 전시실들, 강당, 카페테리아, 설치 공간 등을 배치하였다.<그림 19> 그리고 이 공간 주위로 스튜디오와 교실들을 배치하고 이것들을 분리하는 대신 서로 혼합하여 여러 과목



<그림 19> Bernard Tschumi, School of Architecture, 내부스케치, 1994-99

들의 다양한 활동의 조합이 일어나도록 의도하였다. 이것은 공간 구성에 있어서 큰 공간과 작은 공간들을 동시에 공존시킴으로써, 사용자는 ‘부분 속’에 전체와 ‘전체 속의 부분’이라는 이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상으로 대립항들의 동시적 공존을 통해, 주체적 경험과 해석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2차 대전 이후 전개된 현대 건축의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주체적 경험과 해석의 가능성을 내재한 현대 건축의 대표적 사례분석

현대 건축 사례	사이 영역을 이루는 동시적 공존 관계의 대립항 (주체적 경험과 해석의 가능성을 내재한 영역)
New Haven House (Charles W. Moore)	<중심과 이동의 동시적 경험> • 파빌리언과 수직, 수평의 통로에 의한 중심성과 이동의 동시적 경험
Kunsthal (Rem Koolhaas)	<내부와 외부의 동시적 경험> •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는 입방체의 관입 • 내,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선택적 동선 • 통로 공간과 행위 공간의 중첩
School of Architecture (Bernard Tschumi)	<부분과 전체의 동시적 경험> •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전시 홀과 그 주위로 배치된 각 개실들의 동시적 공존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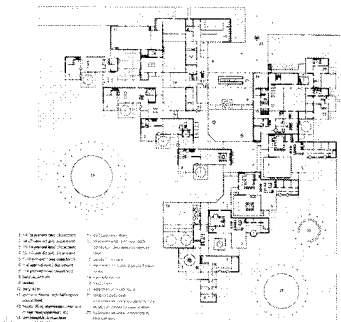
4. 시립 고아원에서 실현된 사이 영역 개념

본 장에서는 알도 반 아이크를 주목받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CIAM의 해체를 선언한 오텔로 회의(Otterlo, 1959)에서 발표한 암스테르담 시립 고아원을 대상으로 그의 사이 영역의 개념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비록 이 건물이 그의 초기 작품이지만, 戰後 CIAM이라는 시대적 의미 속에서 사이 영역 개념을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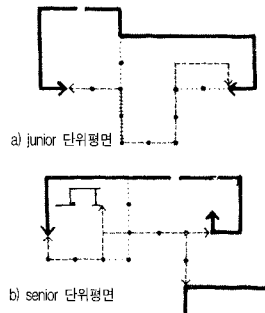
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를 발생시킨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특별한 공간적 형상을 ‘틈(in-between)’이라고 부르고 있다.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서울, 2003, p.76

4.1. 집중형과 확산형 배치의 동시적 공존

암스테르담 시립 고아원은 전체 평면<그림 20> 구성에서는 각 단위공간들이 날개를 펼치듯이 전개되고 있으나, <그림 21>에서 보듯이, 각 단위공간의 뒷면(북측)은 단단한 벽체에 의한 닫힌 형태이고 안뜰에 면한 앞면(남측)은 유리벽에 의한 열린 형태를 취함으로써, 아이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구별된 작은 군집들이 집중적인 구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³⁹⁾ 즉, 알도 반 아이크는 고아원에서 요구되는 특성인 개인(가족)과 집단(사회)이라는 상충되는 이중적 가치를 포용하는 시스템을 건축화하기 위하여 집중형과 확산형 구성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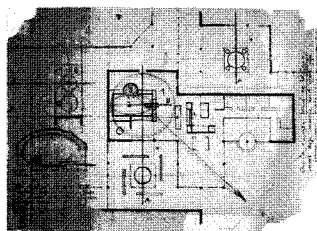
<그림 20>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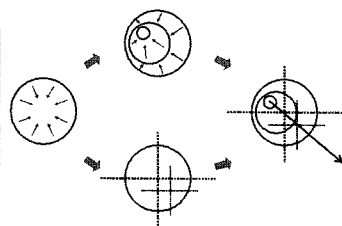
<그림 21> 단위평면의 기본패턴

또한, 단위공간의 배치방식을 보면 대칭적이고 중심성을 갖는 정사각형의 단위공간들이 직교그리드에 따라 배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동적인 대각선 방향으로 각 공간들을 엮어놓음으로써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것은 용이한 이동을 통해 고아원 전체라는 사회로서의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다. 결국, 단위공간의 복합체로 구성된 이 건물은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배치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집단이라는 사회적 성격과 개인이라는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 아이들의 내면세계를 건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4.2. 중심과 탈중심의 동시적 경험



<그림 22> 2-4세 단위 평면



<그림 23> 중심의 전이 분석도

39) 첫 번째 그룹은 보다 나이가 적은 아이들을 위한 4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는데, 영아, 2~4세, 4~6세, 6~10세를 위한 방으로 나뉘어져 있고, 두 번째 그룹은 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위한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14세와 14~20세까지의 남자 아이들 방 두 개와 그와 비스한 나이별로 구성된 여자 아이들 방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40) 김문덕, 앞의 책, p.45

고아원에서는 건물 전체의 직교체계를 가로지르는 대각선의 방향성이 단위공간의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23>의 A에서 보듯이 큰 돔으로 덮인 정사각형 공간은 중심적 공간 구성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두 단 아래의 놀이 공간이나 놀이 집(play-house)의 배치(<그림 23>의 B)로 인해 실제 그 공간의 중심성이 확정되지 않는다. 즉, 중심성을 지닌 돔 공간에서 편심되어 있는 놀이 공간과 놀이 집의 배치와 부엌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차 축(<그림 23>의 C)에 의해 중심성이 나란히 비껴남으로 대각선의 방향성(<그림 23>의 D)이 얻어진다. 이와 같이 각각의 단위공간들은 그 나름대로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중심성은 배타적이고 지배적이기보다는 주변과의 관계를 가지며 다핵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평면상의 도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내부공간에서 창과 기둥의 위치나 불박이 의자와 테이블, 부엌 선반의 높이와 위치, 내부의 조명등 등을 통해 3차원적으로 지각된다.



<그림 24> 북측 입구에서 안뜰 쪽을 바라본 장면



<그림 25> 남측에서 북측 입구 쪽을 바라본 장면



<그림 26> 놀이공간에서 부엌 쪽을 바라본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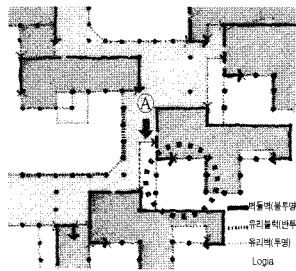
즉, 위의 연속적인 3개의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림 24>는 북측 입구에서 남측의 안뜰 쪽을 바라본 장면으로 안뜰로 나 있는 창문의 중심과 비껴 있으며, 그 너머에 있는 안뜰의 모래밭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공간에서 외부공간으로 시선 유도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그림 25>은 남측 면 전체의 중앙에서 북측 문을 바라본 장면으로, 북측 입구에서 2단 아래의 놀이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북측 입구의 축 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놀이 공간으로 내려서는 지점은 놀이 공간의 중심에서 비껴있으며, 놀이 집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만나게 된다. <그림 26>은 놀이 공간의 중심에서 부엌을 바라본 장면으로, 부엌으로의 계단은 중심축 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부엌의 중심과는 비껴있다. 이러한 중심과 중심으로부터의 이탈을 미묘하게 조절함으로써, 비어 있는 공간이나 사물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점유하거나 움직이는 신체가 그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즉, 대부분의 순수한 기하학적 원형을 취하고 있는 건축에서 중심성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알도 반 아이크의 중심성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움직이는 신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⁴¹⁾ 결국, 알도 반 아이크는 각각의 부분들을 그 자

41) 건축공간에서 인간의 참여와 관련된 '신체의 중심성'을 바탕으로 체험되는 공간적 질서를 만들고자 시도하였던 찰스 무어와 유사하지만, 알도 반 아이크는 이러한 신체의 중심성을 다핵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중

체는 중심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는 탈 중심화시켜 주변의 공간으로 확산시키는 독특한 원심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법의 초점은 시각 주체로서의 감각적 경험에 맞추어져 있다.

4.3. 내·외부의 동시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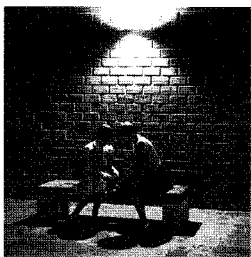
나이가 적은 아이들을 위한 그룹의 평면<그림 27>에서 보듯이 안뜰(원형의 점선 부분)이 사이 영역을 형성하면서 각 단위공간들을 분절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 가로'(채색된 복도)와 옥외 공간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때 구체적인 장소 개념으로서의 사이 영역인 안뜰은 내부가로를 거닐 때 내, 외부 공간의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전이적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각각의 안뜰은 유리로 둘러싸인 채 돌출된 거실 방의 볼륨에 면해 있고, 다른 쪽은 내부가로에 면해 있는데, 안뜰의 일부가 내부가로로 관입됨으로써 내, 외부의 모호한 관계를 증폭시킨다.



<그림 27> 내부가로와 관입된 안뜰



<그림 28> A지점에서 바라본 내부가로와 관입된 안뜰



<그림 29> 내부가로의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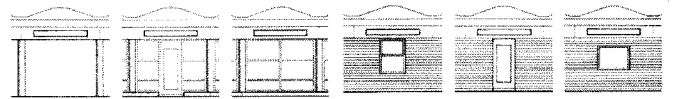
<그림 28>에서 보듯이, 벽돌로 된 외부의 벽이 내부로 말아 들어가서 내부 가로의 벽이 외벽과 같은 재료로 처리되고, 조명 또한 도시의 옥외 가로등처럼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모호한 관계가 더욱 증진된다.⁴²⁾<그림 29> 이것은 실외에서 생기 있게 놀던 아이들이 실내로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이며⁴³⁾, 내·외부의 동시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만들고자 함이다.

4.4. 부분과 전체의 동시적 경험

크고 작은 개별 돔들로 구성된 이 건물은 내부 가로라는 통로를 통해 전체의 구성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큰 돔과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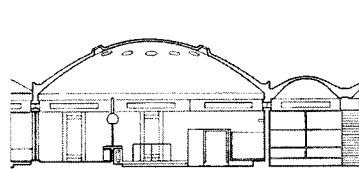
심성을 전이(shift)시켜 비위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변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심성이라는 내부 지향적 성격과 중심의 전이를 통한 확장이라는 외부 지향적 성격을 동시에 공존시키고 있다.

42)알도 반 아이크는 여기서 “복도는 도시의 가로가 되고, 실내의 조명은 가로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Van Eyck, Aldo, 앞의 책, 1961, p.31 43)위의 책, p.32



<그림 30> 다양한 입면처리

돔의 볼륨적 대비<그림 31>를 아이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완화하고 각 단위 개체들을 하나의 전체로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키텍트레이브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틀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기본 구조틀에 의해 획득되는 전체의 통일성과 함께 그 틀을 메우는 벽들의 성격, 가령 비우거나, 창 모양을 달리하거나, 투명한 유리와 반투명한 유리블럭, 혹은 견고한 벽돌 등 재료의 성격에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성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그림 30> 특히, 이 건물에서 놀이방(playroom)은 아이들의 치수에 맞는 스케일을 위해 단지 천장고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큰 돔의 높은 공간과 그 속에 있는 상황놀이를 위한 작은 공간(<그림 32>에서 원형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함께 돔으로써, 그들이 기거하는 큰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놀이공간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그림 31> 2-4세 playroom 단면도



<그림 32> 2-4세 playroom

이상으로 작품분석을 정리하면, 알도 반 아이크의 암스테르담 시립 고아원에서는 다음의 <표 2>와 같은 방식으로 사이영역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다.

<표 2> 암스테르담 시립고아원에서 실현된 사이영역 개념

개인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의 동시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평면구성에서 확산형과 집중형의 평면구성을 동시에 취함 정적이고 중심적인 단위공간들을 역동적인 대각선 방향으로 엮음 집단이라는 사회적 성격과 개인이라는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 아이들의 내면세계를 건축적으로 수용
중심과 탈중심의 동시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공간과 가구의 스케일과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단위 공간 속에 있는 작은 공간들은 자체적으로 중심적 구성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다른 공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탈중심화되어 확산되는 원심적 구성을 동시에 취함 시각축과 동선축을 통한 시각 주체의 감각적 경험에 바탕을 둠
내·외부의 동시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단위 공간들을 연결하는 내부가로의 로지아 부분에서 내, 외부 공간의 상호관입 외부로의 출입구에 면해 있는 내부가로의 벽면을 외부의 벽 재료와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처리함 실내외를 오가는 아이들이 내외부의 단절된 공간적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함
부분과 전체의 동시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구조프레임을 공유하면서도 입면에 다양한 변화를 줌으로써 통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부여함 큰 돔의 층고가 높은 공간 속에 상황놀이를 위한 작은 공간들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아이들의 신체놀이를 통해 큰 공간과 작은 공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됨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 개념의 변화로부터 비롯된 관계 구조의 논의는 戰後 CIAM의 핵심적인 주제였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결국 CIAM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알도 반 아이크는 이러한 관계의 구조를 사이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한층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심화과정을 통해 사이 영역 개념은 부분과 전체, 내부와 외부 등 이항 대립적인 가치들의 공존적 경험의 장으로써, 그리고 주체적 경험의 가능성을 내재한 개념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은, 각각 주체로서의 감각적 경험과 건축공간의 창의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현대 건축의 주요한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묘한 시각차가 있지만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영역 개념은 戰後의 사회문화적 바탕위에 형성된 실존주의와 구조주의의 철학적 가치들과도 부분적인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알도 반 아이크의 대표작이면서, 당시 戰後 CIAM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암스테르담 시립 고아원 작품을 분석한 결과,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집으로서의 성격과 집단의 커뮤니티를 수용하는 하나의 사회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고아원의 이중적 측면을 건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체적인 배치에서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중심과 탈중심, 내부와 외부, 부분과 전체 등과 같은 대립항들의 양면적 가치를 공존 시킴으로써 대립항들 간의 유동적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알도 반 아이크가 구현하고자 한 관계의 구조로서의 사이 영역 개념이 추상적인 기하학이나 조형적인 유희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들의 생활과 행태나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편적 공간과 이성적 측면을 강조한 근대건축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 戰後 건축문화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서울, 2003
2. 김문덕, 램 콜하스와 네덜란드 근, 현대건축, 태림문화사, 서울, 2005
3. a+u, The Work of Charles W. Moore, 김정신 譯, 갑을출판사, 서울, 1989
4.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3rd ed., Thames and Hudson, London, 1992
5. Goldhagen, Sarah Williams & Legault, Rejean ed. Anxious Modernisms: Experimentation in Postwar Architectural Culture, The MIT press, Massachusetts, 2000

6. Hertzberger, Herman & Van Roijen Wortmann, Addie & Strauven, Francis, Aldo van Eyck: Hubertus house, Stichting Wonen, Amsterdam, 1982
7. Hill, Jonathan, Actions of Architecture: Architects and Creative Users, Routledge, London & New York, 2003
8. Lichtelijn, Vincent ed. Aldo van Eyck: Works, Birkhäuser Publishers, Basel, 1999
9. Lichtenstein, Claude & Schregenerberger, Thomas ed. As Found: The Discovery of the Ordinary, Lars Müller Publisher, Baden, 2000
10. Lüchinger, Arnulf, Structuralism i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Karl Krämer, Stuttgart, 1981
11. Mumford, Eric.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The MIT press, Massachusetts, 2000
12. Newman, Oscar, CIAM '59 in Otterlo: group for the research of social and visual interrelationships, Karl Krämer Verlag, Stuttgart, 1961
13. Rem Koolhaas, El croquis 53+79, 1998
14. Smithson, Alison ed., Team 10 meetings: 1953-1984, Publikatieburo Bouwkunde, Delft, 1991
15. Smithson, Alison ed., Team 10 Primer, The MIT Press, Massachusetts, 1974
16. Smithson, Alison & Peter, Ordinariness and Light, The MIT Press, Massachusetts, 1970
17. Smithson, Alison & Peter, The Charged Void, The Monacelli Press, New York, 2001
18. Strauven, Francis, Aldo van Eyck: The Shape of Relativity, Architectura & Natura, Amsterdam, 1998
19. Van Den Heuvel, Dirk & Risselada, Max ed., Team10: In Search of a Utopia of the Present 1953-81, NAI Publishers, Rotterdam, 2006
20. Van Eyck, Aldo, Miracles of moderation, Eidgeno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ürich, 1976
21. Van Eyck, Aldo, Niet om het even, wel evenwaardig, Van Gennepe, Amsterdam, 1986
22. Bosman, Jos, CIAM After the War: a Balance of the Modern Movement, Rassegna, Vol.14, No.52, 1992
23. Van Dijk, Hans, The demise of structuralism, Architectuur in Nederland Jaarboek 1988-1989, 1989
24. Van Eyck, Aldo, Place and Occasion, Progressive Architecture, vol.43, no.9, 1962

<접수 : 2007. 12. 31>